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
(생활규칙 24)



알바노 라지알레 - 모원 공동체에서
오늘, 2025 년 10 월 27 일 1 시 50 분
로레다나, 마리아 베리타스 칸지안 수녀님이
(LOREDANA, Sr M. VERITAS CANZIAN)
80 세로 (61 년간의 수도생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셨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의 마음이 기뻐하고, 주님과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항상 그분의 얼굴을
찾아라. 오늘 전례의 모든 기도는 사목 사도직에서 사랑하고 충실히 따랐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능력을 믿은 후 오늘 성부의 집으로 돌아 간 로레다나 수녀님의 삶과 사명을 묘사합니다.

로레다나는 1945 년 5 월 18 일 폰타넬레트(TV)에서 태어났습니다. 수녀님은 1945 년 5 월
31 일 폰타넬레트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수녀님은 1959 년 9 월 15 일 알바노 라지알레-
모원에서 수녀회에 입회했고 1963 년 9 월 2 일에 수련소에 입소했습니다. 수녀님은 1964 년 9 월
3 일 마리아 베리타스(Maria Veritas)라는 이름으로 첫 서원을 하고 알바노 라지알레(Albano
Laziale)에 남아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1965 년에 수녀님은 바리 공동체로 파견되어 교구 차원의
교리 교육을 맡았고, 그녀의 섬세함과 준비에 대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수녀님은 1969 년 9 월 3 일 알바노 라지알레- 모원에서 종신서원을 했습니다. 종신서원
청원서에서 수녀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나의 성소에 온전히 부합하기 위해
진정성 있고 완전한 수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공동체의 도움을 매우 신뢰하며, 이러한 이유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진정으로 "작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참되고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는 데
전념하겠습니다.*

로레다나 수녀는 초기 양성 때부터 깊은 신앙과 동정심을 지닌 사람으로 묘사되며,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객관적이고, 단순하며,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이타적이며, 공동체 생활을
사랑하고, 좋은 성격을 지니고, 관대하고, 책임감이 있으며, 모든 사목적 필요에 개방적입니다.

수녀님은 관구 통솔, 관구 비서, 유기서원장 및 공동체 원장 등 다양한 통솔의 봉사직을
유능하고 관대하며 헌신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수녀님은 이탈리아와 알바니아에서 주로 교리 분야와

사목 봉사자 양성에서 큰 열정으로 사목 사도직을 수행했습니다. 1970 년 알바노 라지알레(RM); 1978 년 카스텔라마레-아누지아텔라(NA); 1982 년 리에티(RI); 1983 년 알바노 라지알레(RM); 1989 년 나폴리 – 마레치아로; 1998 년 라보라테(SA); 2005 년 판나라노(BN); 2010 년 폰테 산 조반니 (PG); 2014 년 카슈니엠티의 웅그레이(알바니아); 2015 년 스쿠타리(알바니아)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이탈리아로 돌아가야 하는 2020 년까지 머물렀습니다.

수녀님은 유능한 능력을 바탕으로 모원과 학교 모두에서 문학 분야를 가르치는 데 전념하여 젊은 세대에게 문화, 지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으로 증언 했습니다. 이러한 헌신으로 수녀님은 가르침과 사목 활동을 잘 조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로레다나 수녀님은 알바노 라지알레 – 모원으로 다시 돌아와 수녀님의 건강과 가까운 사람들의 사랑을 위해 필요한 모든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로레다나 수녀님의 질병의 모든 단계에서 많은 사랑과 의료, 지원을 해준 수녀님들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수녀님들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수녀님은 침묵으로, 봉헌으로, 유순하게 병상을 살았습니다. 수녀님은 이 병상의 시기를 살았던 것 처럼 ‘사뿐이’ 우리를 떠났습니다. 나는 운이 좋게도 선교지에서 수녀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알바니아어를 몰랐지만 그의 존재는 우리 국민과 공동체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의 선하심과 같은 수녀님의 선하신 마음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포용적이고 내어주는 선량함, 항상 가장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입니다. 온유함은 수녀님의 특징이었고, 결코 강압이나 (지위의) 악용이 없었고, 오직 모두에 대한 봉사와 형제애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 본당에 대한 수녀님의 지식은 페르멘팀(Fermentim) 공동체에 대한 선물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고 애정 어린 몸짓은 말 대신 수녀님이 사랑했고 사랑받은 선교의 땅에서 남녀노소의 마음에 말했습니다. 우리의 페르멘팀(Fermentim)집은 수녀님이 보고, 느끼고, 만지고, 사랑한 물리적, 영적 공간에서 수녀님이 현존하는 것을 계속 느낄 것입니다.

로레다나 수녀님, 우리가 수녀님을 아버지의 자비에 맡기면서, 수녀님이 깊이 사랑한 선한 목자와 그분의 백성을 사랑과 기쁨으로 섬겼던 빠스토크엘라로서의 수녀님의 증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선교 공동체와 특별히 알바니아와 교회와 우리 바오로 가족의 성소자들을 위해 수녀님의 전구를 청합니다.

총 장

아민타 사르미엔토 푸엔테스 수녀

2025 년 10 월 27 일, 로마

교황 성 에바리스토 기념일